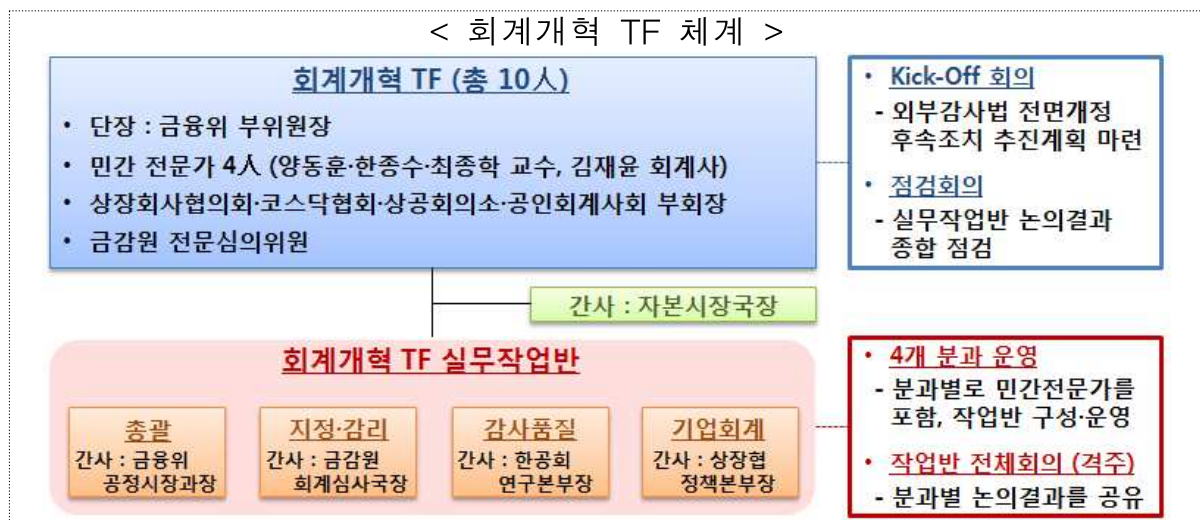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시	배포	2018.1.16.(화)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8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93)	

## 제 목 :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 TF 논의 결과

### < 외부감사 대상 >

- 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구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음(의견청취 계속)
- ②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은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여 선진국 사례\*와 같이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외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해외사례) 영국·독일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되,  
i)자산(약 70억원 이하), ii)연매출(약 140억원 이하), iii)종업원 수(50인 이하)의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보아 예외를 인정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 ③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사항은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함

\* (예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 & 증선위 감리 신청 등

- ④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지목된 증선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감리시스템을 선진화<sup>1)</sup> 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sup>2)</sup>을 활용할 필요

1)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

2) 감리 계좌추적권(도입 추진 중) 및 위협기반 첨단 심사분석 기법 활용 등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 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 (예시 1)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정비율(5%)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

(예시 2)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회계법인들의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 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를 남설하는 행태를 방지)

- ⑥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⑦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 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품질관리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

- (향후계획)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 참고 1

##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 기업경영과 외부감사 현장에서 회계개혁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임
  - i)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 ii)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iii)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비로소 맛 볼 수 있을 것임
  - 기업은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랍
  - 회계업계는 이번 개혁으로 감사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주길 바랍
  - 금감원은 현행 감리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비판적 인식을 경청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랍
- 지난 첫 회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번 개혁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바랍

## (1) 외부감사 대상

### 가. 개정 법률내용

####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됨

- \* 현행 외감대상 주식회사 기준(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①자산 120억 이상, ②자산 70억 이상 & 종업원 300명 이상, ③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④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 ②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실시 의무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19.11월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시행)
-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나. 추진 방향

#### ① 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포함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마련

- 기존 외감대상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 참고 : 영국의 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 >

-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 자산, 연매출, 종업원 수를 모두 고려한 결과 소규모 회사이면 예외
  - 소규모 회사의 정의 : ①~③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 ①연매출 : £ 10.2백만 이하 ②총자산 : £ 5.1백만 이하 ③종업원 : 50인 이하
- ※ 독일, 호주도 연매출 · 총자산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 설정

#### ②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 ⇒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가. 개정 법률내용

-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 <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

- i)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 ii)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시행령)

### 나. 추진 방향

#### ①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관련

- 법상 예외사유로 증선위 감리가 지목됨에 따라 감리시스템 선진화와 연계하여 운영
- 시행령上 추가하는 예외사항은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우수 & 증선위 감리 신청 등

#### ② 주기적 지정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정제 운영방식을 개선

##### < 지정방식 개선과제 (안) >

##### (i) 특수한 사정이 있는 기업의 수요를 적극 고려

- Big4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에서 지정
- 지배·종속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신청 가능

##### (ii)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

- 대규모 회사를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폭 확대 등
- \*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 (1 + 旣지정받은 회사 수)

##### (iii) 지정감사 품질 제고

- 지정감사인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감사인력·이사의 보수, 감사품질관리 절차 등의 작성·공개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정점수 일부 차감

### (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가. 개정 법률내용

- **(등록 의무)**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

\* 인력, 예산, 물적설비,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

- **(등록 취소)** ① 등록 후에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② 습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이상의 중선위 조치 시 취소 가능

#### 나. 추진 방향

- ① **(등록요건)**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건 마련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

\* (예)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정비율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

- 국내 회계업계의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요건 추가

\* (예) 로컬 회계법인들은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를 남설 → 통합관리법인 형태 운영의무 부과

- ② **(감독)**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모니터링하고,

- 품질관리가 우수한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지정점수 산정체계를 개선

- ③ **(회계법인 대형화 유도)**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

## (4)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

### 가. 개정 법률내용

#### □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 (자산규모별로 '23년까지 단계적 도입)

-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총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나. 추진 방향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

-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
  -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포함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관련 주요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

⇒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에 소홀한 경우  
외감법상 제재(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②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적극 지원

- 내부회계관리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거래소 내에 설치(공인회계사회는 전문가 상담 및 현장파견 등 지원)
- 기업 대표이사가 회계윤리 교육(금융위 인정)을 이수한 경우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상장협 주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 공청회 개최 (2월)



### 참고 3

### 회계개혁에 따른 주요 변화

		현 행	앞으로의 변화
<b>[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b>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16년 기준 약 27,114개사)	유한회사* 추가 * ’16년 기준 27,860개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인인 검토	외부감사 도입 (감사의견 변경 가능)
		-	대표이사의 주총보고 의무
감사인 선임 권한		경영진	감사위원회(감사)
<b>[감사인]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b>			
감사인	감사인 지정	지정사유 해당 시 (’16년 기준 상장사 177개)	모든 상장사* 및 일부 대규모 비상장사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 ’16년 기준 약 2,800개사
	상장사 감사인	별도 자격요건 없음	엄격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
감사내용	핵심감사제	수주산업에 한정	모든 산업
		외부감사 실무지침에 규정	회계감사기준에 규정
	감사품질 관리기준	자율규제	법상 준수 의무
	표준 감사시간	낮은 감사보수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곤란	표준감사시간 법적근거 신설 *표준감사시간 현저히 미달 시 감사인 지정
감사인의 책임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신설 (자격취소, 직무정지 등)
		손해배상시효 3년	8년
<b>[정부]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감독방식 선진화 및 제재 강화</b>			
감독방식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사전예방 강화
과징금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절대상한 20억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신설 (절대상한 없음) * 기존 대비 50~100배 증가 가능
형벌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	부당이득의 3배 이하